‘여수 다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본격화

시, 시민 선호 반영 명칭 확정·후보지 신청 절차 착수
향일암 주상절리·여자만 갯벌 등 지질명소 12곳 제시

여수시가 ‘여수 다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에서 ‘2026년 제1회 여수시 지질공원위원회’를 개최,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3월 시민 선호도 조사로 확정된 ‘여수 다도해 지질공원’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이는 여수의 섬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여수 다도해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현구 부시장을 비롯해 지질·관광 분야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국내 고생물학 분야의 석학인 진주교육대학교 김경수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용역 보고 및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에서는 핵심 지질 명소로 향일암 주상절리, 여자만 갯벌, 오동도 해안, 사도·낭도·추도 공룡 화석지 등 총 12개소가 제시됐다. 특히 사도와 낭도는 학술적 가치가 높아 향후 지질공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전문 해설사가 함께하는 ‘지오투어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지오 푸드(Geo-food)’ 개발 등 주민 소득 창출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을 당부했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여수 다도해 지질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여수의 섬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여수시는 최근 시청에서 ‘2026년 제1회 여수시 지질공원위원회’를 개최,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순천, 귀농귀촌 안정 정착 지원
현장 체험 등 길잡이 교육 운영

순천시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귀농귀촌 길잡이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혁신농업인센터에서 열린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 17일까지 3개월간, 총 19회 77시간 과정이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시간대에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귀농귀촌 희망자 30명 이내로 농업 기초부터 농촌생활 적응까지 단계별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귀농귀촌 이해·농촌생활 적응, 농업창업 기초·품목선택, 토양·비료·병해충 관리, 농기계 안전·사용 실습, 농산물 유통·마케팅 등으로 구성되며, 귀농 초기 정착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이론뿐 아니라 과수·과채·수도작 등 선도농가 방문 체험, 농기계 실습, 선진지 견학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해 실질적인 영농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또 귀농 선도농가 사례 공유와 지역민과의 소통·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농촌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교육 수료 후에도 정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길잡이 교육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

고흥군은 최근 두원면 동신마을 회관에서 마을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송 소하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고흥군청

고흥, 소하천 정비…집중호우 재해예방 ‘속도’

두원 신송천 사업 주민설명회…영농 편의 증진 기대

고흥군은 최근 두원면 동신마을 회관에서 마을주민과 이해관계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원 신송 소하천 정비사업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열린 1차 설명회에 이어, 신송천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편입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신송천 일원에서 반복되는 하천 범람과 농경지 침수 등 재해 위험성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 필요성과 사업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아울러 사업 구간 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신송천 정비사업은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1365m), 호안 블록(122m), 전석쌓기(758m), 교량 재가설 등이다. 이를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영농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동신·외신·서신마을 주민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군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두원 신송 소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재해예방사업”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보성, ‘인공지능 산업 전환’ 해법 모색

박정수 교수 초청 ‘보성자치포럼’ 성료

보성군은 최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박정수 교수를 초청해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스마트화를 주제로 ‘제381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등 지역이 직면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공직자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 박정수 교수는 기존의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을 넘어선 ‘AI 전환(AX·AI Transformation)’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제는 자동화를 넘어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성군의 산업 구조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전통적인 농림축산어업을 미래지향적 고소득 구조로 바꾸고, 관광 및 에너지 산업과 AI를 융합해 남해안 스마트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응한 AI 기반 돌봄 서비스 도입과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을 통한 스마트 관광 활성화 방안 등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 방향을 제시하며, 실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라는 지역의 위기를 AI 기술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제시된 전략을 스마트농업, 관광 등 군정 전반에 적극 검토해 보성군이 남해안 스마트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장흥, ‘통합돌봄’ 본격 추진
수행기관과 매뉴얼 등 점검

장흥군은 최근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5개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흥군 통합돌봄사업 운영 매뉴얼과 서비스 기준, 사업비 집행·정산 절차 등 실무 중심 사항이 안내됐으며, 사업 추진에 앞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장흥군통합돌봄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장흥종합사회복지관(가사·동행지원), 정남진뷔페(식사지원), 대한미용사회 장흥군지부(방문이미용), 장흥지역자활센터(청소지원), 온누리건축(주거환경개선) 등이다.

군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행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통합돌봄 사업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수행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통합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어린이날 곡성 섬진강기차마을로 오세요”

군, 내달 3~5일 이벤트…뮤지컬·마술쇼 등 행사 풍성

곡성군이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을 선보인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5월 3~5일 3일간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어린이날 기념 특별 이벤트 ‘기차마을 대탐험! Hi Fun Balloon Festival’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풍선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가족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날 특별 공연으로는 어린이 명작 뮤지컬(커다란 방귀)과 디즈니·애니메이션 OST 콘서트가 준비됐고, 눈을 뗄 수 없는 매직 일루전 쇼와 신나는 DJ 랜덤댄스 공연이 축제의 흥을 더한다. 또 행사 기간 마술쇼, 버블쇼, 벌룬아트, 키다리 삐에로 등 관객과 호흡하는 버스킹 공연이 상시 운영된다.

오감 만족 체험을 위해 주무대 옆 잔디광장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직접 참여하는 부스가 운영된다. 터널형 에어바운스와 미니 오징어게임, 명랑 벌룬 운동회, 애완새 교감 체험, 이동식 천문대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또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캐릭터 굿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곡성=김유번 기자

지난해 5월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 어린이날 특별 행사 모습.

광양시는 최근 청사 창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대응 공공기관 유치 및 핵심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양시청

광양, 공공기관 유치·미래 성장동력 역량 집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응 보고회서 인프라 등 구체화

광양시가 공공기관 유치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청사 창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대응 공공기관 유치 및 핵심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광양시장 권한대행 김정완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관련 부서장 21명이 참석했다.

공공기관 유치 보고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과 유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산업·에너지·환경·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광양만권 산업 기반과의 연계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핵심사업 보고는 산업·에너지, 항만·물류, 관광,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농업 등 6개 분야 30개 사업이 제시됐으며, 이 가운데 18개 사업이 산업·항만 분야에 집중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광양항 글로벌 수소 암모니아 수입 및 환적 허브 구축, 광양항 북극항로 진출 거점항만 육성 사업, 광양만권 산업벨트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포함됐다.

김정완 권한대행은 “전남·광주 통합은 지역 발전을 앞당길 중요한 기회다”며 “공공기관 유치와 핵심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과 연계한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